

교통연구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광주·무안~김포 'KTX 잠식 승객' 최다

무안공항, 제주·동남아 공략 필요 흑산도 등에 소형공항 설치 제기

KTX(고속철도)의 개통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공편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KTX가 비슷한 시간대에 직접 도심 내 역사로 승객을 이동시키는 반면 항공편은 대부분 공항이 도심 외곽에 있어 절대적인 이동 시간에 있어서는 KTX와 유사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낮기 때문이다.

KTX가 항공수요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국가연구기관이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KTX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를 분석한 것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처음이다.

◇승객 감소 최대 김포~광주·무안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완공될 경우 서울~광주가 1시간30분까지 좁혀진다. 현재 항공편으로 김포~광주가 40여분 소요되지만 대기시간이나 공항까지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1시간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편의 시간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주항공 및 여수공항 이용자 각각 407명과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각각 64.2%와 47.1%가 항공편 대신 KTX를 타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김포~부산 22.8%,

김포~포항 43.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KTX의 대중화는 곧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철제침몰'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공항 살길은 통폐합?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내놓은 공항정책 방향은 크게 대기시간 감축 서비스 질 향상과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 즉 지방공항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다. 국내선보다는 지역 국제선 수요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지역 중심공항 개념을 도입하고, 도서 지역 간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공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무안은 김포, 청주, 김해, 제주와 함께 지역중심 공항으로 단거리 동남아시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간선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선은 김포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는 조속한 시일 내 광주공항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비행기 타고 흑산도 가나=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도서지역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형항공기(좌석수 50인승 이하)가 조조정이다. 국내선보다는 지역 국제선 수요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지역 중심공항 개념을 도입하고, 도서 지역 간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공항을 흑산도에 두고 중부권 및 서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할 경우 흑산도와 함께 지역중심 공항으로 단거리 동남아시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간선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11일 오후 영암 F1(포물러원) 경주장에서 FIA(국제자동차연맹)의 기술대표인 찰리 화이팅(앞줄 오른쪽 네 번째)씨와 관계자들이 경주장 노면 포장과 안전시설물 등을 검수하고 있다. /내망주기자 mjna@kwangju.co.kr

가드레일·연석 등 안전시설 20여건 보완 요구 그의 입에 F1 개최 여부가... 가슴 졸인 3시간

F1 영암 경주장 서킷 최종 검수 동행 취재

11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야 그라프리카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 대한 최종 검수는 긴장감 속에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F1 대회운영법인인 KAVO측과 경주장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 전남도 관계자 등은 검수 내내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의 찰리 화이팅 기술 대표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바짝 긴장하며 진지하게 검수에 임했다.

지난 2007년 이후 3년 넘게 매달려 온 경주장 건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최초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여부가 좌우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찰리 화이팅 기술대표가 서킷 표면을 발로 구르거나 가드레일, 버지(verge·잔디가 깔린 길) 등을 만지면서 동행한 FIA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바짝 따라붙으며 귀를 기울였다.

검수와 상관없는 구간인데도 정비

다. 버지가 깔린 곳을 연석(緣石)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가드레일을 더 늘리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커브 구간은 특히 꼼꼼히 살펴 가드레일을 두드려보거나 인조잔디가 제대로 부착됐는지 여부, 미끄럼 방지 페인트 밖의 구간으로 차량이 밀려나지 않도록 추가 안전 장치를 보완해줄 것도 지시했다. 이날 찰리 화이팅이 요구한 사항만 20여개.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듯 찰리 화이팅은 이것저것 주문하면서도 관계자들에게 이따금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SK건설 강만호 소장은 "최종 검수를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랐고 매일 3명의 직원이 하루 세차량 이상 서킷을 직접 돌며 가드레일의 볼트 조임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했다"면서 검수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FIA는 12일 오후 최종 검수 결과를 KAVO측에 통보하며 이번 검수 결과 '그레이트 1'등급을 받아야 F1 대회를 치를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경주장 VIP 클럽에 강진청자 전시

윤도현씨 제작 기증

강진에서 제작된 초대형 고려청자가 포물러원(F1) 영암 경주장의 최고급 VIP라운지인 패독클럽에 전시된다.

11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청자명인' 윤도현(66·전남도의원)씨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높이 1m, 둘레 2.6m 크기 초대형 고려청자를 기증했다. 강진요에서 만들어진 '청



청자명인 윤도현(오른쪽) 전남도의원이 박준영 도지사에게 직접 제작한 청자를 기증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선옥, 젊은층·여성들 선호 서대석, 40대·남성들에 강세

■서구청장 재선거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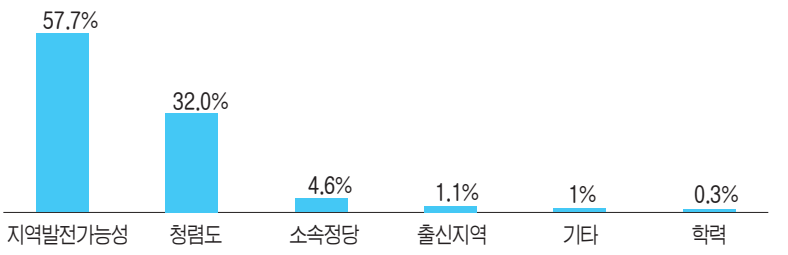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선호도에서 28.2%를 얻어, 18.9%에 그친 비민주당 4당 서대석 후보를 10%포인트 가량 앞섰다.

이러 무소속 김종식 후보는 14.3%로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가 ±4.4%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 후보와 김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후보로 뒤늦게 뛰어든 박금자 후보는 2.1%에 그쳤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첫 여성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탓인지 남성(27.3%)에 비해 여성(29.0%)에게 더욱 선호도가 높았으며, 비민주당 4당 서대석 후보는 여성(13.2%)보다는 남성(25.1%)의 지지도가 높았다.

연령대별 선호도에서는 김선옥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19~29세의 젊은 층에서는 항공레포츠와 체험관광을 위해 민간사업자 주도로 수습비행장도 들어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투표시 고려사항



서대석 후보는 40대에서 28.7%를 차지해 김선옥(24.8%), 김종식(11.9%), 박금자(3.2%) 후보를 앞서는 등 4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김종식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30.0%의 지지율을 얻어 노년층의 지지도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대석 후보가 자영업(27.7%)에서, 김종식 후보는 무직·기타(23.4%)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김선옥 후보는 ▲블루칼라(30.1%) ▲화이트칼라(31.8%) ▲가정주부(28.4%) ▲학생(36.8%) 등의 직업군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

'꼭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층에서는 김 후보가 25.3%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서대석 후보 24.7%, 김종식 후보 20.8%로, 세 후보 모두 적극적 투표 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면, '아마 할 것'이라고 답한 긍정적 투표 층에서는 김선옥 후보가 38.1%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서대석 후보와 김종식 후보는 각각 17.5%, 7.8%에 그쳤다.

따라서 투표에 긍정적인 유권자를 선거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경우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 하루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한 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을 사용했다. 응답률은 18.1%였다. 표본오차는 ±4.4% 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제력 있는 어른신이 되기 위한 광주 희망 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광주 YWCA와 함께하는 50세이상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잡(job) 고(go) 행복한 미래!

지금 바로 구직등록 하세요
www.gjoldpeople.com

행사당일 이력서 지참해 방문하세요
(이력서 대필가능)

호남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간부출신 및 전문가분들의 일자리(멘토 등)
창출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합니다.

일시 2010. 10. 14(목) 1일간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의 50세이상 일자리 박람회 사무국 062)526-2203~4
☎500-702 광주광역시 북구 유등 107-5번지 광주YWCA 고령자인재은행(3층)

주최 광주고용노동청 주관 광주YWCA 후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방보훈청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년인력개발원